

# 서구 '만드리 풍년제' 주민화합 한마당

### 27일 서창 세동마을 들녘서 '전통축제' 들노래 재현 도자기컵 디자인·미꾸라지 잡기 등 체험행사 '다채'

광주 서구가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복원, 주민들과 함께하는 전통축제 한마당을 펼친다.

24일 서구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창 세동마을 들녘에서 '제19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개최한다.

만드리는 7월 백중(음력 7월15일) 무렵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김매기를 재현하는 행사다. 농사를 잘 지은 주인이 머슴의 노고를 위로하고

마을주민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에서 유래했다.

서구는 서창·발산·중촌마을 등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들노래의 명맥을 잇기 위해 각종 문화 사료들을 검증, 1999년부터 '만드리 풍년제'를 복원해 왔다.

이날 행사는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만드리 보존회원들과 함께 들노래를 배우고 따라 부르는 의식행사로 진행된다.

의식행사 후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새겨진 농기와 만드리기를 앞세운 일꾼 등 100여명의 재현팀들이 논으로 이동해 소리꾼들의 소리와 함께 김매기에 돌입한다.

김매기를 마친 머슴들이 황소를 타고 들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들어오면 임우진 서구청장이 농주가 되어 머슴에게 술과 음식을 주고 격려한다.

만드리 재현 후 행사장에서는 서구민이 다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진도북춤, 민요, 가요, 가야금병창, 대금과 색소폰 등의 공연과 대나무 물총, 바람개비 만들기, 부채에 담은 서창들

넉, 나만의 도자기컵 디자인, 물놀이, 미꾸라지 잡기 등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한옥문화관 1층에 방문객들을 위한 마을잡치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행사 당일 전통차와 다과 등 먹거리와 서창지역 로컬푸드 장터도 함께 열린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만드리 행사는 농사를 잘 지은 부농들이 머슴의 노고를 위로하고 마을주민의 화합을 다지던 전통 풍년농사 기원놀이"라며 "올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이번 행사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kjdaily.com



폭염 속 분주한 얼음공장. 썬더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4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제빙공장에서 직원들이 시원함을 주는 얼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에리 기자 kki@kjdaily.com

## “박근혜 정부서 신 삼청교육대 끌러가”

### 황홍규 부교육감, 직무수행 박탈 등 전 정권 행태 비판

박근혜 정부에서 정적적 갈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황홍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전 정권의 행태를 '신 삼청교육대'에 비유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황 부교육감은 2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과 전교조 징계, 국정교과서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 삼청교육대에서 12주 동안 직무수행 권한을 박탈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광주시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도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교육훈련 명령을 내린 것은 법령 위반이다"며 "그런데도 협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이나 훈령 등을 근거로 핍박한 사례는 많이

있다"며 "감사원 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황 부교육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 인제개발원에서 12주 동안 연수를 받았다.

이 연수는 통상적인 고위공무원 교육과정과 달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각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휘국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과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 각종 현안으로 박근혜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때 황 부교육감이 정부의 편에 서지 않고 교육감과 같은 입장을 보인 데 따라 분풀이성 인사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014년 12월 광주시교육청에 부임한 황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임명한 일선 시도 부교육감의 평균 근무 기간인 1-2년을 지나 2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황 부교육감은 "이러한 조치가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교육감 밑에서 일했던 부교육감에 대해 핍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감사원에 묻고 싶다"며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선임견과 편견 없이 판단해 어떤 경우에도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은성기자 pes@kjdaily.com

### 오늘의 날씨

▶별례 지역 날씨 최저/최고기온

인천	24/31	서울	24/34	춘천	24/33	강릉	23/27
대전	25/33	전주	26/33	대구	26/30	부산	26/30
목포	26/31	광주	26/33	제주	28/34	여수	27/32
울산	23/28	수원	27/32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40 (우산을 준비하세요)
- 빨래 20 (세탁기 켜는 날)
- 세차 10 (다음으로 미루세요)
- 운동 40 (가벼운 실내운동 하세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70-60	목포	03:36	08:45
목포	60-20		15:39	20:51
순천	60-70	여수	10:23	04:13
여수	60-70		22:54	16:22

▶남해 남부 (동량/파고)

오전	앞바다	북-북동/0.5-0.5m
	면바다	북-북동/0.5-1.0m
오후	앞바다	북-북동/0.5-0.5m
	면바다	북-북동/0.5-1.0m

▶남해 서부 (동량/파고)

오전	앞바다	서-북서/0.5-0.5m
	면바다	남서-서/0.5-1.0m
오후	앞바다	북동-동/0.5-1.0m
	면바다	북동-동/1.0-1.5m

▶주간날씨

기간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7월	26/수 ☁(25/33)	(24/32)	☁(22/28)	☁(24/31)	☁(24/30)	☁(27/32)
27/목	☁(24/33)	☁(24/32)	☁(22/28)	☁(24/33)	☁(23/32)	☁(27/33)
28/금	☁(24/33)	☁(25/32)	☁(23/27)	☁(24/32)	☁(23/35)	☁(27/33)

▶날씨안내 : 국번없이119

## 광주·전남 10월까지 평년 비 더 적다

광주·전남지역은 오는 10월까지 평년에 비해 비가 많이 내리는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앞으로 3개월(8-10월) 동안의 기상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기상청이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다음달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평년(21.8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66.9mm)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0월 기온은 평년(16.1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47.2mm)과 비슷하겠다.

이달과 비슷한 날씨로 예상되는 8월은 국지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월 기온은 평년(25.8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60.1mm)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9월 기온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평년(21.8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66.9mm)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0월 기온은 평년(16.1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47.2mm)과 비슷하겠다.

/임후성기자 uyear@kjdaily.com

## 5·18 언론상 취재·뉴미디어 4편 선정

광주전남기자협회와 5·18기념재단은 24일 '2017년 5·18 언론상' 수상작으로 취재보도 부문 3편과 뉴미디어 부문 1편, 공로상 1편을 선정했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광주MBC 김민정, 김철원, 강성우, 최선영의 '5·18발포명령자 추적' 취재 ▲뉴스시 배동민, 신대희기자의 '37년 만에 증명한 계엄군의 5·18 헬기 사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회고록' 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뉴미디어 부문에는 전남대 병원이 발간한 '5·18 10일간의 아전병원'과 관련 동영상이 뽑혔고, 공로상에는 전 이장성 중앙일보 사진기자의 사진집 '28년 만의 약속'이 선정됐다.

5·18 언론상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광주시민의 민주정신을 올바르게 알리는 언론인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21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호영기자 lawhh@kjdaily.com

# 예원 신양파크호텔 6층 중식당

(豫園) 예약문의 062-226-3888~9

각종상품권 사용가능 및 기프트식사권 판매합니다.

## 35년

전통중화요리 전문점

여행같은 요리를 만날수 있는 곳 신양파크 6층

전가복, 마파두부, 팔보채